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30 권 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	봉헌 (217)	성체 (164)	파견 (479)
---------	--------	----------	----------	----------

제1독서 | 이사 42,1-4.6-7

화답송 | 시편 29(28),1ㄱ과 2.3ㄱ과 4.3ㄴ과 9ㄷ-10(㉠11ㄴ)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

복음환호송 | 마르 9,7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태 3,13-17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2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1/19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6	유 요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2/2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83	\$40	\$6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5	김 마론/ 김 헬레나	1/11	유 요한/ 유 마리아
2/22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8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29	손 아놀드/ 손 쟈마	1/25	홍 마르코/ 홍 아네스
3/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	김 요아킴/ 고 안나
3/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은퇴 후 계획을 물으신다면

-임주빈 모니카 | KBS 심의위원, 시그니스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 서울 회장

정년퇴직이 몇 년 남지 않으니 많은 분이 은퇴 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35년이나 한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했으면 됐지, 퇴직 후에 또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니, 게으른 저에겐 형벌이나 진배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계획대로 된 것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현실적인 여건들이 따라주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계획이 무산된 일, 이리저리 궁리를 할 때는 영 안 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창 시절 계획대로라면 ‘저는 의대나 치대에 입학했거나(대학 입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실패)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의, 치대를 못 가서 차선책으로 자연과학계열로 입학했으니) 실력 있는 과학자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에서 이과 공부를 하고, 자연과학계열로 입학했지만 뒤늦게 이과 공부가 제게 맞지 않음을 깨닫고 대학교 3학년부터 문과로 옮겨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원서를 내기 전까진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송사에 입사해서, 라디오 클래식 음악 채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모두 젊은 시절 제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한때는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한 적이 있는 제가 어찌하여 뒤늦게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고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 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2월 6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다음 임원회의는 2월 2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에페소서):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omeless Feeding 2월 1일 st. Vincent de Paul center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매년 해오던 홀리스 조식봉사를 위의 날짜에 하게 되었습니다.

양말 선물을 위한 헌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따뜻한 정성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도 미납 교무금 납부 안내

지난 해 납부하지 못한 교무금을 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그레이스 자매님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게 된 것인지, 이 역시 제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설계자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난날 일이 제 계획대로 안 되어서 속상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그때 잘 안된 것이 다행이었거나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설계하시니 어련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제게 딱 맞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것이 부질없는 일 마냥 느껴집니다. 물론 하루하루, 일 주일, 한 달, 일 년 단위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선 실행방안을 세우겠지만, 대체적으로 인생의 큰 틀에서 내 의지로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젠 더 고민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보다는 주님이 주신 일, 이래저래 하게 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마음에 들게 하고 싶으니까요.

복음묵상

당신의 선하신 영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시편 143:10-

-서울주보에서-